



자갈치크루즈호 선수와 남항(2019,7)

Der Zweck des Lebens ist  
ein ununterbrochenes  
Vorwärtsgen,  
Die Stürme sind Freund des  
Menschens,  
der nicht aufgibt,  
In einer Drangsal aber findet  
man  
die Freude des Lebens.  
Wie langweilig wird  
das Segeln ohne Sturm!  
Je härter die Drangsal ist,  
desto stärker schlägt mein Herz.

Von F. Nietzsche

삶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먼 곳으로 향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핀다.

프리드리히 니체



부산 남항에 정박 중인 Star Voyager호(2019.7)

### 배가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는 바닷가를 산보하거나,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단 일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나 해양 관련 산업 종사자이건 간에 그리 큰 차이는 없다. 배를 타고 여행해 볼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배 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비단 일반인이건 선원이건 아니면 해양대학의 교수이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할진대 선박의 항해사로 승선하는 후배가 남항 묘박지에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고 ‘저 배들이 없었으면 경치가 더 좋았을텐데’라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배가 떠있지 않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다. 그저 잔물에 지나지 않는다.